

# LG전자, 커브드 스마트폰 공개

<G플렉스>, 커브드 OLED 패널 장착 ... 커브드 배터리도 장착

LG전자가 흰 화면을 장착한 커브드 스마트폰 <G플렉스>를 11월12일 출시한다.

<G플렉스>에는 LG디스플레이가 개발한 커브드(Curved) 플라스틱 OLED(Organic Light Emitting Diode) 패널을 장착해 화면이 세로방향으로 휘어진다. 삼성전자의 <갤럭시 라운드>가 가로로 휘는 것과 다른 형태이다.

LG전자는 인간공학적인 설계로 수화기와 송화기를 귀와 입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으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접측면의 방해를 적게 받아 더 풍성하다고 설명했다.

화면의 크기는 6inch이며 해상도는 1280×720이다. 화소 하나당 빨강(R), 녹색(G), 파랑(B) 3개의 하위화소를 적용한 정격 RGB 체계를 채택했다.

LG화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커브드 배터리도 적용됐다. 커브드 배터리는 구부릴 때 받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용량은 기존 배터리 최대 수준인 3500mAh이다.

LG전자 마창민 상무는 “진화된 디자인, 사용자 경험, 하드웨어를 모두 갖춘 스마트폰”이라고 소개하며 “커브드로 시작하게 될 플렉서블(Flexible)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구적인 위상을 지속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1/05>